

2020년 9월 17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독점 금지법 및 파월 발언으로 하락 파월, “통화정책이 금융안전성 방어의 최전선이 돼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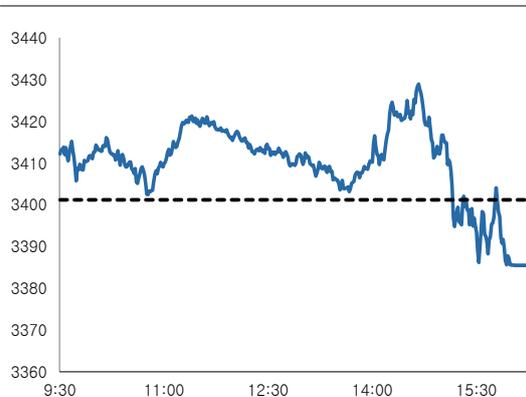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대형 기술주 급락

미 증시는 은행과 에너지가 국제유가 상승과 반발 매수세에 기대 강세 출발했으나 대형 기술주가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로 매물 출회 되자 상승 반납. 장 후반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2023년까지 저금리 유지를 시사하자 상승 확대하기도 했음. 그러나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의 최전선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이후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화가 컸음(다우 +0.13%, 나스닥 -1.25%, S&P500 -0.46%, 러셀 2000 +0.92%)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 부진과 FOMC 결과로 변화. 대형기술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며 나스닥이 하락 전환. 애플(-2.92%)의 경우 신제품 출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 놀라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물이 출회. 특히 페이스북(-3.27%)에 대해 FTC(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유입되자 페이스북은 물론 대형기술주에 대한 매물 출회. 그동안 산업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진행되며 독점 금지법 강화 우려가 높아져 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소송등을 통해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대형 기술주 하락을 부추김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최근 몇 개월 동안 금융여건이 개선되었다며 올해 성장률을 지난 6 월(-6.5%) 보다 상향한 -3.7%로 전망. 실업률도 기존의 9.3% 보다 안정된 7.6%로 전망 했으며 핵심 인플레이율은 기존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더불어 연준은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고 금리도 23년까지는 현 수준 유지를 시사. 이 소식으로 지수는 상승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은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의 최전선에서 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 이는 주식시장이 연준의 저금리에 기반해 편더맨탈과 차별화 속 강세를 보인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 실제 이 발언 이후 지수는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여기에 목표 인플레이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했고 현재 채권 매입 수준이 적절 하라며 추가 부양책에 신중한 발언을 한 점도 부담. 물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31	2,435.92	홍콩항셱	24,725.63	-0.03		
KOSDAQ	-0.35	896.28	영국	6,078.48	-0.44		
DOW	+0.13	28,032.38	독일	13,255.37	+0.29		
NASDAQ	-1.25	11,050.47	프랑스	5,074.42	+0.13		
S&P 500	-0.46	3,385.49	스페인	7,110.80	+1.06		
상하이종합	-0.36	3,283.92	그리스	661.19	-0.36		
일본	+0.09	23,475.53	이탈리아	19,963.99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기술주 부진 Vs. 은행 에너지 강세

애플(-2.92%)은 새로운게 없던 신제품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페이스북(-3.27%)은 독점 규제 관련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를 보였고 알파벳(-1.50%), MS(-1.79%), 아마존(-2.47%) 등 여타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어도비(-4.35%)는 개선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제공에 대한 실망감이 유입되며 하락했다. 페덱스(+5.76%)는 실적 호전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로 매출 증가 기대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했다. 라스베가스샌즈(-4.20%), 윈 리조트(-3.18%) 등 카지노 회사들은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했다.

넥스트라 에너지(-5.19%)는 주식분할 이후 매물 출회 되었던 사례를 감안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져 하락했다. 주택시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KB홈(+5.53%), 레나르(+3.94%) 등 주택 건설업종이 급등 했다. JP모건(+0.42%), 씨티그룹(+2.70%) 등 금융주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특히 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 언급에도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되었다. 모기지 대출 등이 많은 웰스파고(+3.34%)도 급등했다. 엑손모빌(+4.25%), 세브론(+2.89%)은 물론 코노코필립스(+3.79%)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기반해 상승폭이 컸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91%	대형 가치주 ETF(IVE)	+0.70%
에너지섹터 ETF(OIH)	+4.74%	중형 가치주 ETF(IWS)	+0.80%
소매업체 ETF(XRT)	+0.47%	소형 가치주 ETF(IWN)	+1.14%
금융섹터 ETF(XLF)	+1.13%	대형 성장주 ETF(VUG)	-1.16%
기술섹터 ETF(XLK)	-1.55%	중형 성장주 ETF(IWP)	-0.4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7%	소형 성장주 ETF(IWO)	+0.78%
인터넷업체 ETF(FDN)	-1.19%	배당주 ETF(DVY)	+1.24%
리츠업체 ETF(XLRE)	+0.6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2%
주택건설업체 ETF(XHB)	+1.6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9%
바이오섹터 ETF(IBB)	+0.07%	미국 국채 ETF(IEF)	-0.06%
헬스케어 ETF(XLV)	-0.17%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20%	물가연동채 ETF(TIP)	0.00%
반도체 ETF(SMH)	-1.23%	Long/short ETF(BTAL)	-0.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3.06	+4.05%	+0.34%	-9.71%
소재	416.01	+0.07%	+2.29%	+5.59%
산업재	669.49	+0.99%	+2.50%	+3.37%
경기소비재	1,205.26	-1.02%	-1.40%	-1.00%
필수소비재	661.08	-0.51%	-0.79%	-0.27%
헬스케어	1,231.71	-0.22%	+0.10%	-1.47%
금융	413.56	+1.11%	+0.36%	+1.31%
IT	2,013.40	-1.56%	-1.57%	-0.47%
커뮤니케이션	198.99	-1.21%	-1.25%	-0.13%
유틸리티	302.84	-0.21%	+0.36%	-0.28%
부동산	229.49	+0.54%	+2.32%	+2.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 했으나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13%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3.8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형 기술주가 독점 금지법 관련 내용 부각 및 차익 욕구가 높아진 여파로 낙폭이 컸다. 여기에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의 채권 매입 수준이 적절하다며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것에는 신중함을 추구한 점도 부담을 줬다. 이러한 미 증시에서의 변화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과 기업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유동성에 의해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차익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제유가가 허리케인 여파이기는 하지만 급등하고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역외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 NDF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일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의 경우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으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의 강세가 기대돼 지수 변화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종목 차별화 장세를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매판매 부진

8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로 지난달 발표치(mom +0.9%)나 예상치(mom +1.0%)을 하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7%로 예상(mom +1.0%)을 하회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자동차 및 부품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음식료는 1.2% 감소했다. 그러나 의류 판매점은 전월 대비 2.9% 증가하고 음식 서비스 등은 4.7% 증가했다.

9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78) 보다 개선된 83 으로 발표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외 지역으로의 이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택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 개선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허리케인 영향으로 5% 급등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샬리가 여전히 멕시코만에 머물면서 해양 시추시설이 멈춘 가운데 공급감소 기대가 높아진 점이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EIA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439만 배럴 감소해 예상(120만 배럴 감소) 보다 감소폭이 컸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여기에 정유시설 가동률도 지난주 71.8%를 크게 상회한 75.8%를 기록해 원유 수요 또한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달러화는 소매판매 부진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연준이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약세 요인이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에 기반해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폭을 축소하거나 강세를 보였다. 특히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상승 전환 했다.

미 국채금리는 소매판매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다. 여기에 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FOMC를 앞두고 낙폭이 좀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파월 의장은 채권 매입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상승 전환했다. 더불어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금은 FOMC를 기다리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기대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20% 철근은 0.6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0.16	+4.91	+5.55	Dollar Index	93.176	+0.14	-0.08
브렌트유	42.22	+4.17	+3.51	EUR/USD	1.1801	-0.39	-0.02
금	1,970.50	+0.22	+0.80	USD/JPY	105.05	-0.37	-1.06
은	27.476	+0.04	+1.45	GBP/USD	1.2956	+0.52	-0.35
알루미늄	1,795.50	+0.34	+0.64	USD/CHF	0.9104	+0.25	-0.22
전기동	6,777.00	+0.23	+0.64	AUD/USD	0.7297	-0.07	+0.19
아연	2,528.00	+1.26	+4.33	USD/CAD	1.3176	-0.08	+0.23
옥수수	371.75	+1.57	+3.19	USD/BRL	5.2369	-0.76	-1.33
밀	542.00	+0.70	-0.32	USD/CNH	6.7501	-0.45	-1.19
대두	1,011.25	+1.99	+3.32	USD/KRW	1176.10	-0.25	-1.09
커피	119.85	-1.60	-6.98	USD/KRW NDF 1M	1173.89	-0.54	-0.9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95	+1.64	-0.48	스페인	0.258	-1.00	-7.80
한국	1.482	-1.80	-3.50	포르투갈	0.285	-1.00	-7.40
일본	0.021	0.00	-1.00	그리스	1.065	-1.60	-8.20
독일	-0.484	-0.50	-2.20	이탈리아	0.967	-3.00	-5.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